

# 沈黙은 金이 아니다

반원전 논리에 정면 대응해야



金 積 玉  
〈韓國原産 弘報委員〉

## 이솝의 램프

마루 위에 매달아 놓은 램프가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나는 햇빛보다도 더 밝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훑히고 불어들자 램프불은 힘없이 꺼지고 말았다.

주인이 다시 램프에 불을 붙이면서 조용히 타일렀다. 「램프야! 이젠 아무소리 말고 비치고만 있거라. 별빛은 말이 없어도 꺼지는 일이 없지 않니?」

이 우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말 많은것보다도 해롭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변은 銀이고 침묵은 金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솝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이지 지금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물론 「햇빛보다 밝다」는 식의 지나친 과장은 금물이겠지 만 정당하게 자기를 알리는 일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 原電의 13년의 성과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을 시작한지도 이제 13년이 되었다. 오일쇼크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던 시절, 脱油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1978년 4월, 우리는 원전1호기를 첫가동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9기의 원전을 가동하면서 전체발전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10위권내의 원전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의 원전은 세계적인 자원공급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안정공급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아니라 설비이용율이 이미 세계평균이용율보다도 약10%가 높은 76%를 넘어서고 있으며 핵연료의 국산화에 이어 원전의 설계와 제작분야에까지 착실한 기술자립이 진척되고 있어 머지 않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진출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원자력

계가 이룩한 성과인 동시에 우리 기술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代案없는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는 원전을 거부하는 반대여론이 일고 있으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선동과 공격을 일삼고 있다. 바다에서 등이 굽은 물고기가 잡혀도 방사선때문이고 이웃에 기형가축이 나와도 그 원인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찾으려고 한다.

어떤이는 원자력산업이 역사상 최대의 실패작으로서 세계의 선진국들이 원전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말하고 원전을 짓기보다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태양열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나간다면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벌써부터 전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마당에 에너지의 효율향상과 태양열 및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들이다.

반대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원전을 추진하는 전문인들을 국익을 위하는 전문인이 아니라 외국 제작회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반국가적 반민중적 집단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지역주민과 원전종사자 사이를 이간시킴으로써 적대감과 집단소요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계는 매양 말이 없는 편이다.

## 왜 할 말을 못하는가

뜻 있는 몇몇 인사가 지면을 통하여 반론을 제기할 뿐이고 대부분의 원전종사자들은 묵묵히 입을 다문채 천직처럼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아우성이냐?」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밖에서 보는 그들의 몸짓은 한낱 믿음직스럽고 한낱 바보스러워 보인다.

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이제는 정당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를 밝히고 반대의 목소리와도 맞서서 그 허구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설득해야 한다.

글이면 글, 말이면 말로 원자력계의 소신을 밝히고 반대측 이상으로 애국도하고 민중도 아낀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K씨가 최근 C지에 게재한 「虛構에 찬 反原電論理」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2 제3의 용기있는 대응을 기대하고자 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홍보란 어느 특정기관이나 몇몇 사람만이 전담할 사안이 아니다. 전 원자력계, 전체 종사자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주장을 펴 나갈때 그것이 하나의 울림이 되어 공감대를 넓히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한다. 정치문제가 그렇고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침묵하는 대중은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원자력발전이 아무리 필요하고 건설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려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역사의 장에 그 빛을 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원전을 추진해야 하는가?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세계의 흐름과 한국 원전의 현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진로는 어느 쪽인가? 등등.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누구든지 확실하고 자신있게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한다. 沈黙은 결코 금이 아니다.